

[기획]

光州日報 선정 2006년 광주·전남 10대 뉴스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발표

지난 11월 24일 정부가 무안~신안~목포~영암~해남을 아우르는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2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은 ▲물류거점 육성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사업을 청와대가 구상했던 '서남해안권 발전계획'(무안·목포권 성장계획)과 병행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J프로젝트 부지 확보 ▲기업도시 투자기업에 획기적인 혜택 부여 ▲목포~대불산간 삼학대교 조기 완공 지원 등도 약속했다.



패트리엇 부대 이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주둔했던 주한 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가 지난 10월 13일 '고별식'을 갖고 1년 11개월 만에 광주에서 철수했다. 광주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미사일 III' 16기와 450여 명의 '미 8군 방공여단 방공대대' 소속 부대원들은 광주를 떠나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 부대 '캠프 캐롤'로 이전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는 지난 2004년 11월30일 광주에 배치됐으며, 국내 반전단체·대학생·노동자 등은 18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부대 정문 앞에서 부대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벨상 수상자 정상회의, 민족통일촉진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 평화의 사도 12인(단체 포함)들이 대거 참여한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6월 15일~17일)'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6·15민족통일대추전(6월 14일~17일)'이 같은 시기에 광주에서 열렸다. 두 행사는 지역적으로는 5·18정신의 세계화와 광주 위상제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간 협력분위기 조성, 국제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신장과 세계평화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를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평화·통일의 도시로 승화시킨 행사들이었다.



전남대·여수대 통합 새출발

전남대가 3월1일 여수대와 통합해 17개 단과대학, 9개 대학원 규모의 대학으로 새출발했다. 전남대는 2008년까지 교육부로부터 310억원의 통합지원금을 받아 특성화사업을 추진, 대학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여수캠퍼스(옛 여수대)를 통해 향후 전남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합은 여수캠퍼스 내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실패로 빛이 바랬다. 교육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11월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키로 해 전남대와 여수지역민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5·31 지방선거와 민선 4기 출범

5·31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 기초단체장 5곳 모두를 석권, 2004년 총선 이후 4연승을 거두며 당 재건의 발판을 구축했다.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10곳, 열린우리당 5곳, 무소속 7곳으로 3분했다. 지방의회도 '민주당 독점' 구도가 심화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4기는 단체장의 잇따른 중도하차와 파행 인사, 전임 단체장 추진 사업의 무더기 중단 등 초반부터 극심한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시·도의회는 무리하게 유급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다 반발을 샀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만성적자와 파업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내버스를 광주시와 사업주가 공동운영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2월21일 실시됐다. 민·관협력 버스운영체계인 준공영제는 시가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 직접 운송수익금 등을 관리함에 따라 투명회사 경영과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되고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연계한 통합환승요금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승객들이 1차적으로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승강장까지 이동한 뒤, 갈아타는 환승 방식에 적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여수 엑스포 유치 본격 추진

여수시는 지난 5월 세계박람회사무국(BIE)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12월3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국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4차 결선투표에서 중국 상하이에 34대 54로 패배한 지 4년여 만에 또 다시 국운(國運)을 건박람회 유치전에 나선 셈이다. 2012세계박람회에는 여수를 비롯 모로코의 탕헤르와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등 3개 도시가 경쟁하게 되며, 최종 개최국은 내년 12월 98개 BIE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불법 얼룩진 광주상의 선거

지난 3월 열린 제 19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상공의원 선거는 선거인명부 열람제한, 위임투표 등 불법논란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하다가 상의 조류의 회장 공백사태로 비화됐다. 법원이 상의인원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직무대행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불구행정'이 이어졌다. 급기야 광주시장의 중재를 통해 남양과 금호측이 19대 회장의 임기단축과 선거규정 개정 등에 합의했으나 양측의 화해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쟁인수추진 과정에서 보인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내년부터 임의가입단체로 전환하는 상의의 앞날이 밝지않은 않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지난 8월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오는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물론 2023년 완공 예정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돼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문광부는 광주시와 지역 여력을 수렴, 내년 3월 말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과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FTA 반대 집회 폭력 시위 변질

전국적으로 반(反)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시위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11월 22일 광주에서는 FTA반대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 시위대들은 광주시청에 돌맹이 등을 던지며 청사 난입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340여명의 대형 유리창과 보안시스템, 산업전시관이 파손돼 3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경찰·시위대 등 4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시는 시위를 주도한 한미 FTA반대 소속 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1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높이층 아파트 거주층 한여름 보일러 보급사업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 100% 국산 부품 사용
▶ 24시간 긴급서비스
▶ 10년 보증
▶ 100% 국산 부품 사용

다들 물어봐요! 겨울이 다가오니 난방용품 구입하세요!

▶ 100% 국산 부품 사용
▶ 24시간 긴급서비스
▶ 10년 보증
▶ 100% 국산 부품 사용

경동보일러 062)673-4901
010-9469-9373

ANTIQUE FURNITURE GARDENING

30% 이상 낮고를 명품가구 박람회 기념 SALE

▶ 3인용 소파 1,540,000원
▶ 2인용 소파 850,000원
▶ 1인용 소파 470,000원
▶ 4인용 소파 1,900,000원
▶ 2인용 소파 890,000원

▶ 100% 국산 부품 사용
▶ 24시간 긴급서비스
▶ 10년 보증
▶ 100% 국산 부품 사용

명품가구전문점 1층 선취가구전문점 me21955-8820